

[국제]

“한국, 美 흘린 피 배신” VS “부시 잘못”

한성렬 유엔주재 北 차석대사 교체

(사실상 주미대사後)

5년 장기근무 이유...후임에 김명길



미국 내에서 사실상 북한의 주미대사 역할을 해온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다음달 초 교체된다.

뉴욕 외교 소식통들은 27일(현지시간) 한 차석대사가 다음달 교체될 것이라며 김명길 외무부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후임자로 결정됐으며 미 국무부에도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김명길 수석

연구위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교체 배경은 한 차석대사의 교체 배경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장기 근무다. 외교소식통들은 북한 외교관 해외근무 기간이 통상 3년이지만 한 차석대사는 역대 가장 오랜 기간인 5년 가까이 장기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교체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한 차석대사가 대미교섭을 전담해온 사실을 감안할 때 최근 경색된 북미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차석대사가 비교적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뉴욕 외교가에서 온건파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임 김명길은 누구...후임인 김명길 군축평화연구소(외무부 산하) 수석연구위원은 조용하지만 강단이 있는 강성,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외무부 내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가는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북미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 말부터 미국 문제에 관여해 온 미국통으로 진작부터 한성렬 현 차석대사 후임으로 거론돼 왔다.

北, '뉴욕 채널' 성격 변화= '북한의 입' 역할을 해온 한 차석대사의 교체는 사실상 북한의 대미 정책 흐름과 연결돼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북한 내부에서 뉴욕채널을 운영하는 방식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대미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북한 군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미국의 대북 압박을 완화시키지 못한 뉴욕채널의 유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美 하원 국제위 한미동맹 청문회

◇“서울에 반미감정 선포해 이익보려는 사람 있다”=미의회내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공화당 소속 헨리 하이드 위원장은 지난 8월 한국방문과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 미국 방문시 가졌던 두 차례 면담을 언급, “우리가 직면한 이견은 단지 더 성숙하고 평등한 동맹으로 가는 길에 놓인 돌뿌리일 뿐이라고 믿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에 대해 지지를 표하며 “미군의 지휘 아래 50여년을 지내면서 한국군은 동지를 떠나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위기가, 발전을 위한 진통이냐”

미 하원 국제관계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한미동맹 청문회에서 최근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엇갈린 진단을 내렸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부쩍 찾아진 양국간 파

열음을 ‘위기의 창조’로 간주, 우려를 나타낸 반면, 또다른 의원들은 한미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평가하며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진통으로 규정,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중대한 전환기”=민주당 톰 랠로스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더이상 최고의 친구는 아니지만 우리 사이엔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으로 많은 유대를 살아 있다”면서 “의심의 여지없이 한미동맹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국간의 대북견제차를 언급한 뒤 “전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한국 등 6자회담 파트너들과 새로운 대북이니셔티브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실패할 경우 주요동맹국들이 미국을 비난할 것”이라며 공조를 강조했다.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짐 리처 의원(공화)은 미 행정부가 검토중인 대북제재를 우려하며 “이 시점에 (대북제재보다) 더 무모하고 위험하며 미국의 국익에 저해되는 게 없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대한(對韓)공조를 역설했다.

◇“부시에게 책임”=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돌리는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소

속인 개리 에커먼 의원은 “대통령의 정신분열증적(한반도)정책은 지난 2001년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최근 정상회담까지 계속됐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선 사실상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피했지만 미국인들에게 ‘김치는 어딴지?’라고 묻게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간 對北제재 ‘공조’ 필요

◇“한국, 미국이 흘린 피 배신”=한미동맹 문제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공화당 데이비드 로우르바세르 의원은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밝힌 뒤 “오늘날 한국정부는 미군의 희생을 감사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한국정부는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북한독재체제를 탈출한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는 데 이는 50여년전 미국인들이 흘린 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에 반미 선동세력 있다

그는 “2차 대전때 할리우드 영화제작자들은 영국과 중국 등 동맹은 ‘좋은 사람’으로, 독일 나치나 일제는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했다”면서 “반미감정을 선동해 이익을 보려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아주 기본적인 이런 전제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한국내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과 관련, “그 동상은 전시와 평시의 충성을 나타낸다”면서 “미국인들은 긴장의 시대나 평화의 시대, 부족한 때나 풍족할 때도 한국인들 옆에서

美 “작통권 2009년 이양” 재확인

롤리스 국방부 차관 밝혀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2009년 이양이 ‘쉽게 달성 가능하다’고 거듭 2009년 이양 방침을 밝혔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한미동맹 청문회에서 전 작권 이양을 포함한 한미 군사동맹의 재조정이 양국간 동맹을 강화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측

이 주한미군 경비의 부담(burden-sharing)을 더 지원하고 적절한 훈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더 제공하는 것이 전투태세 확보에 필수적인 2대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군주둔 경비 분담과 관련, 롤리스 부차관은 “현 수준의 한국측 지원으로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싶은 만큼 유지할 수 없다”며 “현재는 6천만달러, 즉 우리의 요구 조건의 10%가 부족한 상태에서 군살을 깎고, 필요한 살까지 깎았지만 이제는 뼈까지 깎는 단계”라고 말했다.



28일 상하이야생동물공원에서 열린 2006 동물올림픽(2006 Animal Olympics)에 참가한 호주 캥거루가 어릿광대 옷을 입은 청년과 권투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美 고교서 총기 인질 소동

27일 미국 콜로라도주 베일리 시의 플래트 캐년 고교에서 한 남자가 총기를 들고 침입, 총을 쏘며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이 들어닥치자 여학생 한 명을 총으로 쏘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50세 가량의 범인은 고대 한

건물로 들어가 최소한 두 발 이상 총을 쏘고, 6명을 인질로 잡았다가 4명을 풀어준 뒤 여학생 2명을 마지막까지 인질로 잡고 4시간 여동반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 있던 한 여학생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반기문 유엔총장 ‘대세론’ 확산”

워싱턴 타임스 보도

지난 2차례 유엔 사무총장 예비 투표에서 거꾸로 최다표득한 반기문 외교관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거부권을 받지 않는 후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안보리의 제3차 예비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사무총장 선거 전망 기사에서 반 장관이 “어느 상임이사국의 최신후보도 아니지만,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live with) 후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 5개 상임이사국 어느 한 나라로부터도 거부당하면 안되므로 거부 대상이 아닌 게 가장 중요한 요

건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3차 예비투표를 앞두고 바이라 비게-프리라이베르 라트비아 대통령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카불대 총장 등 2명이 추가로 도전함으로써 반 장관의 총장 도전에 세 변수가 생겼다.

특히 안보리는 앞으로 3주 사이에 총장 후보를 단일화, 유엔 총회에 제시하기 앞서 더 많은 후보들이 나와 선택폭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다.

中 “한국인 투자 백두산호텔 철거하라”

한국인 투자 호텔 4곳 포함
업주들 “계약위반” 강력 반발

백두산(중국어명 창바이산·長白山)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 산하 창바이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가 백두산 북쪽 등산로 주변 호텔에 대해 일제히 철거를 통보했다.

이번에 철거 방침이 전달된 대상에는 한국인 투자호텔도 4곳이나 포함돼 있어 한국인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리위측은 지난 21일 북파로 불리는 백두산 북쪽 등산로 주변 호텔 10여 곳에 일제히 철거 공문을 보내고

“연내 철거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통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현재 백두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북쪽 등산로 주변에는 지린성산천관광호텔과 창바이산은천관광호텔, 지린창바이산간강오락유한공사, 대우호텔 등 한국인이 투자한 호텔 4곳과 북한 국적 재일동포가 투자한 장백산국제관광호텔이 영업 중이다.

공문에 따르면 관리위측은 백두산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상부에서 호텔 등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한 철거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사 2곳을 제시하고 25일까지 이중 1곳을 선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인 투자호텔측은 계약 기간이 엄연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한 것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도의시한 처사라며 부동산 평가사 선정을 거부한 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LCD TV 광고 사업 !! 대리점 모집 TELSON MEDIA (주) 텔슨미디어

LCD 광고란?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주거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 주거시장에 적합한 최초의 사업으로 독립적 경쟁력있는 사업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 주위시선을 집중시키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지털 솔루션 이런 LCD 광고 모니터 시대입니다.

전단지 무지개 광고는 가라! 이제는 "LCD 광고"입니다.

영입 사원 모집 경력·신입 0명

- LCD 광고 모니터 사업
- 본사 APT, 교회, 관공서 LCD 설치수주
- 소치른 무점포 영업
- 본사 광고제작, 광고수주 대행
- 겸업 가능
- 마부 30만원 (대리점 소유 LCD 합리리)
- 3000만원 창업비용으로 월 350만원 이상수익 (주부창업가능)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최대수익가능, 상담하세요!

(주)텔슨 미디어 ☎(062) 374-3006

농산물품질관리사

초창기 자격증을 잡아라(3회)

2차 실기대비반 개강

9월 30일

수업시간 : 토 3시~7시, 일 2시~7시

- 전국최다 합격생 배출
- 전국 유일의 실감의를 하는 학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의 유명 강사의 직강
- 1, 2회 합격생 전원 취업완료

현대고시학원
동부경찰서 옆 ☎ 236-2467

공무원 아간반 첫진도

단 100%출석시 문제풀이는 무료입니다.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0월 1일

★ 행정/사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아간반 운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난방이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막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필름 난방은 영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기파 인입이없고, 타체를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기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

주택관리사(보)

7주 최종 마무리 특강

강의기간	시간표(주말반)	수강대상
9월30일~11월19일	(토)14:00~20:00 (일)10:00~18:00	교육보험가입제지근로자(본국) -선착순 접수 34명 마감-

접수마감-9월28일(20:00) <전화 후 방문 접수>

현대직업전문학교
[1관]전남고교앞 [2관]동부경찰서 옆 ☎ 232-1088, 224-4560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대비 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편입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편입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개강: 10월 2일 ☎ 227-8088